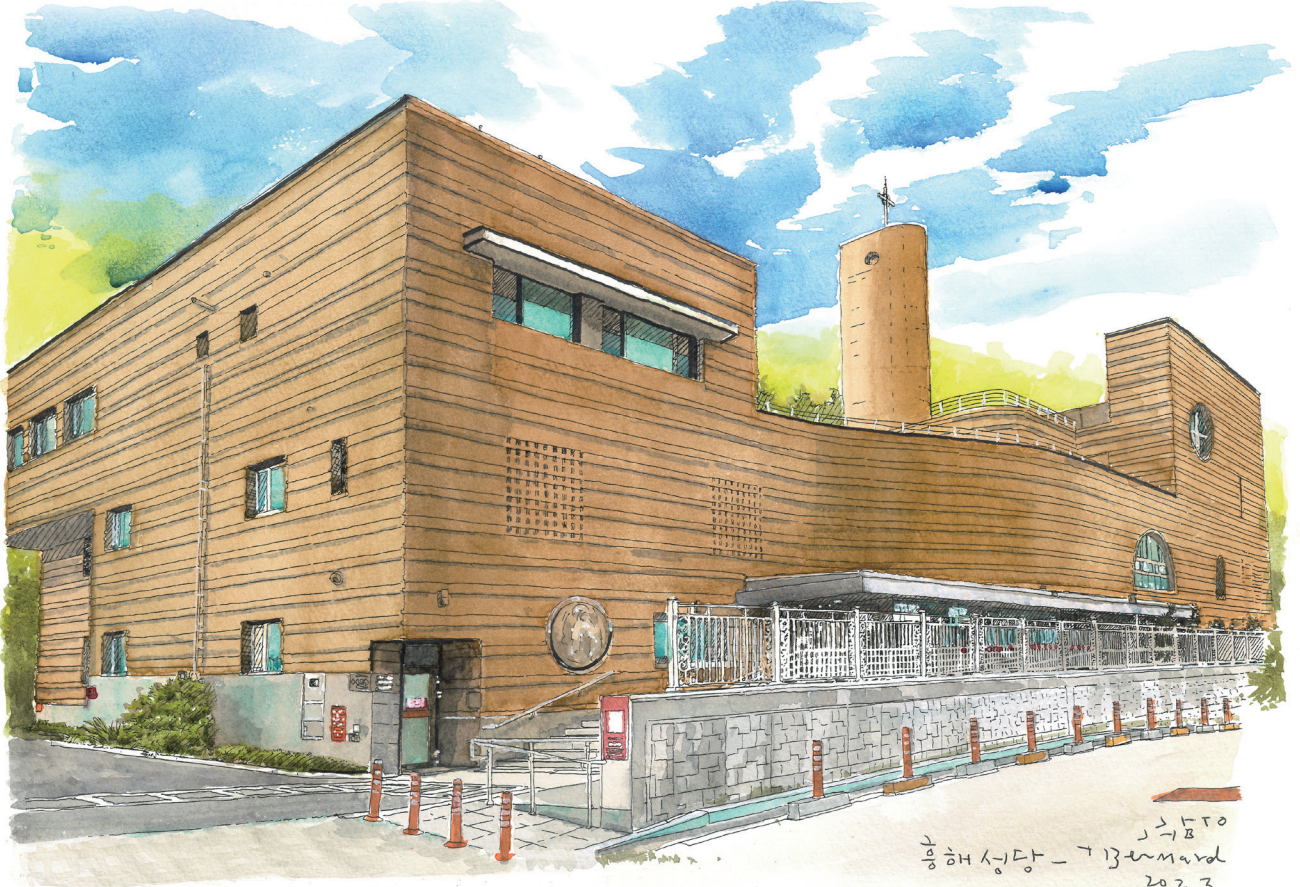


# 대구주보

친교로 하나 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연중 제26주일  
2023. 10. 01. (가해) 제2395호



## 4대리구 흥해성당

그림\_ 서원만 베르나르도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미질로 12-42 문의 | 054)262-2258 <http://cafe.daum.net/hhca-30>

공소로 출발하여 1994년 8월 26일 본당으로 승격 설립되었습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2019년 9월 28일에 새 성전을 봉헌하였으며 교구 성모당과 똑같은 모습의 루르드 성모당도 축복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유해 일부도 모셔져 있으며 4대리구 성모 순례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제 1 독 서 에제 18,25-28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복 음 마태 21,28-32

제 2 독 서 필리 2,1-11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O 주님이 말씀하신다.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내일이 아닌 오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 박원빈 가롤로 신부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영국의 대작가 C.S.루이스가 적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The Screwtape Letters.1942)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련한 늙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조카 ‘웜우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들을 편지 형식으로 적은 독특한 소설입니다.

그 방법 중에 인간에게 ‘내일’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멋지고 대단한 계획들을 세우게 하고 열정이 넘치게 한 다음 그 모든 것들을 ‘내일’부터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내일’이라는 허상을 믿게 만드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에게 ‘오늘’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내일’이라고 부르는 다음 날이 되면 그날은 결국 우리의 ‘오늘’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로 미루게 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스갯말로 “오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일 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할 거라고 계속 미룹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위안합니다.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할 거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의 광고 문구 중에 ‘Just Do I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일단 해 봐’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에게 이 마음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아니고 언젠가도 아니고 지금 일단 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하지 않나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부모님께 효도할 거라고 하지 않나요? 틀어진 관계도 언젠가 화해할 기회가 있겠지 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언젠가 할 게 아니라 지금밖에 할 수 없는 말이랍니다. 용서와 화해도 언젠가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용기 내어 다가갈 때 가능한 거랍니다. 깊은 믿음도 언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손가락 들기 전에 성호경 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랍니다.

하기 싫을 수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속 만아들처럼 결국에는 오늘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인생의 끝에서 행복한 사람은 오늘부터 행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좋은 주님께 서 부르신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힘껏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궤**

#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오라! 알맹이만 파는 가게 **비닐네인**

코이노니아  
피조물과 함께

투스평포교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 이정희 로제 수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는 쓰레기 없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하는 생활태도입니다. 즉, 쓰레기가 될 만한 것을 거절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고 재활용하며, 썩어서 퇴비로 만들어 쓰레기 제로의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베네인에서는 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실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교육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을 안내합니다. 제로웨이스트 숍이며 카페인 베네인에는 다른 매장에서는 흔하지만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닐과 플라스틱, 종이 타월과 선물 포장지 등입니다. 플라스틱 칫솔을 대신할 수 있는 대나무 칫솔, 플라스틱 튜브에 든 치약 대신 고체 치약을 안내하며,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는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아크릴 수세미 대신에 천연 수세미를 제안합니다. 세제와 곡물도 필요한 만큼 용기에 담아 가는 '리필 스테이션'으로 운영하며 제품들은 가급적 국산 제품, 그중에서도 지역 제품을 공급합니다. 또 동성로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인 플라스틱 용기를 줄이기 위해 텀블러를 지참하는 손님에게는 할인율, 깜빡 잊고 텀블러를 가져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준비된 용기를 빌려드리는 텀블러뱅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의 취지를 반가워하며 다음에는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겠다는 약속을 하는 분들 덕분에 반납된 텀블러를 씻고 소독하고 정리하는 수고로움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면대의 종이 타월 박스를 치우고 깨끗하게 삶아 소독된 개인용 손수건을 준비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베네인에 있는 화장실용 손수건을 보고 반성하고 물티슈 대신에 어디든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다."는 손님의 후기에 신나게 매일 아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7명의 수녀가 사는 베네인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한 번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남김없이 먹고, 요리하면서 나오는 찌꺼기와 과일 껍질을 퇴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네에서 흔하게 보이는 스티로폼 박스를 주워서 미생물과 함께 잘 발효시켜 숙성된 거름으로 화단과 정원에 농약과 약품 대신 천연 비료로 사용했습니다. 배추도 심고 부추도 심어서 김치를 담아먹고 지난봄 '지구의 날'에는 베네인을 찾은 손님들에게 천연 거름으로 만든 모종을 선물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만드는 거름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나, 자주 쓰는 생필품이 왜 과대 포장과 재활용할 수 없는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싸여있을까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바뀌는 게 가능할까요? 네! 우리의 소비문화가 바뀔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네인에서는 시민들에게 벌크 제품(포장재 없이 알맹이만 판매)을 소개하고, 일상에서 낭비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만큼 덜어서 살 수 있는 리필제품을 안내하며,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면서 소비한 자원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매장에는 한번 쓰고 버리는 포장지 대신 깨끗하게 정리된 재사용 쇼핑 가방과 알록달록 예쁜 그림의 철 지난 달력과 잡지를 봉투로 만들어 비치해 둡니다. 그래서 베네인에는 익숙하게 리필 스테이션에서 식품이나 제품을 덜어가기 위해 용기를 들고 오는 어린이 손님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보석처럼 쌓여있습니다. **필론**



# 그림은 내 삶의 기록이다

동양화가 | 이안나 요안나

미대를 졸업하자마자 이내 결혼을 해 두 아이를 낳고 한동안 그림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겨우 시간의 여유가 생겨 다시 붓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 위에 동양화를 그립니다. 주로 꽃을 소재로 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에서 피어나는 예쁜 꽃을 소재로 정밀 묘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림 속에서 피어난 꽃 한 송이가 마치 제 자신을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딱 한 송이만 그렸습니다. 마치 그 꽃이 제 자신인 양 매일매일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색도 강하게 하지 않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그렸습니다. 최근에는 모습은 달라도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꽃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나의 신앙과 가족은 하나이고, 그림도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꾸려 나갔고,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찾아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행복이란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꽃을 통해서 가족, 이웃과 소통하는 모습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물고기를 화폭에 등장시켰습니다. 맑은 시냇물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물고기가 꽃을 물고 가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범어성당에 다녔는데 그 언덕을 오를 때면 늘 저를 반기던 물고기상(像)이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결코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삶들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 아름다운 꽃은 피어납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꽃들도 많지만 길가에 홀로 핀 이름 모를 들꽃이 때론 그 어떤 꽃들보다 예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내게 주어진 현실을 타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스스로를 가꾸고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꽃 한 송이 활짝 피우기 위해 감사의 붓을 들어 봅니다. **꽃은**



이안나 선생님은 계명대 동양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개인전, 아트페어부스 개인전을 20회 개최하였고, 25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일상의 삶과 현실에서 느껴지는 복잡한 감정을 꽃에 투영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존재적 가치를 단순하고 절제된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미술협회, 대구가톨릭미술협회와 여러 단체에서 활동 중입니다.

드망즈 주교의 일기  
1914년

## 선교사들의 병역문제

### 10월 8일 목요일

투르뇌 신부가 병역이 면제되었다. 벽돌을 제외한 공사비가 11,000원, 총 견적은 16,000원 가량이다. 베이 드 바야 주교가 9월에 보내기로 한 25,000프랑이 도착한다면 어려움은 없다. 만일 그 돈이 도착하지 않는다면, 전에 부산 본당을 위해 입금된 금액 중에서 충당할 것인데,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편 모두에게 불가항력인 경우이다.

### 10월 9일 금요일

카넬 신부가 영사에게 ‘그를 병역 면제자로 한 이유들이 사라졌으므로 그의 뜻에 일임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내게 보내왔다.

### 10월 11일 일요일

미알롱 신부가 “만일 본국 송환이 허락된다면 프랑스로 돌아갈 것이며, 그 사정을 알고 싶다”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 10월 15일 목요일

페네 신부가 즉시 떠나고 싶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구교구와 파리외방전교회를 떠날 용의가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 10월 19일 월요일

과거지사이지만 이 사실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 기록한다. 아마존 호에서 카넬과 페네 신부는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진찰할 기회를 갖게 되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로 자기들끼리 약속했었다. 홍콩에서 의사가 페네 신부에게서 폐병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래서 나는 2년 전에 그를 사나토리움으로 보내야 했다.

### 10월 22일 목요일

최근의 회람에 적힌 바에 따라 페셀 신부가 일본인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 10월 24일 토요일

영사가 뫼텔 주교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데, 나의 선교사 중 2명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서 의사의 면장(免狀)을 보내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뫼텔 주교는 이 두 선교사들의 행동을 평하면서 이로 인한 나의 감정에 동참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출처 : 가톨릭신문사 창간 60주년 기념자료집 『드망즈 주교 일기』(1987)

# 순교자 현양 사진글 공모전

**공모주제** 순교 영성과의 친교

**참가대상** 3인 이상의 공동체

**공모기간** 2023. 10. 31.(화)

**접수방법** dp21lightzine@dgca.kr(연락처 기재 필수)

**공모방법** - 교구 내 성지를 방문해서 촬영

- 주제는 「순교 영성과의 친교」, 촬영 형태 및 대상은 자유

**문의사항** 월간 <빛> 편집부 255-8405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알림을 참조바랍니다.

## 대구주보 음성서비스 '소리주보' 청취 방법 안내



1. 스마트폰으로 대구주보 표지(1면) 우측 상단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한다.
2. 대구주보 홈페이지 [www.daegujobo.or.kr](http://www.daegujobo.or.kr) 에 접속하여 대구주보 보기를 클릭한다.
3. 스마트폰에서 대구대교구 모바일 앱 (앱 미설치 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대구대교구'를 검색하여 설치) 실행 후 대구주보를 터치한다.

**DCU**  
DAEGU CATHOLIC UNIVERSITY

즐기면서 배우자! 대구가톨릭대 학생들의 필수코스

경주로 떠나는 인성캠프!



소개영상QR코드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공동의 집 지구에서 기후변화로 아픈 식구들 기억하기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진 희생자를 기억하며**  
- 긴급 화살기도와 구호 활동 및 나눔 행동 실천하기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 농어민사목부 제공

묵주기도 성월을 맞아

박성규 엘리지오



묵주기도의 생활화들...

##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일(월) 11:00 성동성당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10월 7일(토) 10:00 지산성당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10월 2일(월) 11:00 계산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10월 7일(토) 10:30 월배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10월 2일(월) 11:00 죽도성당	한국여기회 회원미사	10월 7일(토) 11:00 앞산밀복카페(4층)
3대리구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0월 7일(토) 10:00 월성성당	-	-

### 수도회 성소 | 피정

####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모임

일시: 상시

장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수도원

문의: ofmkvocation@gmail.com

(010)6608-3217

####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10.8(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근처)

대상: 23~39세 신자 (해외선교)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 대구 예수마음기도 1일 무료 피정

일정: 10.18(수) 10:00~16:00

장소: 성김대건성당(황금동)

신청: 교육수녀회, (010)9620-5603

####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

기간: 10.29~31 / 11.16~18 / 11.21~23

11.26~28 / 12.1~3 / 12.29~1.1(연말연시)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 장내 성지에서 쉽고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기간: 10.20~22 / 10.24~26 / 10.29~31

11.3~5 / 11.11~13 / 12.30~1.2(연말연시)

접수: (02)773-1455 / (064)796-4182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화

기간: 10.11~11.15(매주 수)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회의실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등

수강료: 8만원/문의:(053)283-9898

#### 바오로딸 문화영성프로그램

신학통독: 10.5~(목) 4주 19:00

프랑스어묵주기도: 4기 10.7~(토) 10주 13:30

성요한23세 영상묵주기도: 10.11~(수) 14:00

조우경 작가 유리공예: 10.14(토) 14:00

신청 및 문의: (010)6681-5185

### 천주성삼병원 간호사 채용

장소: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문의: 간호부, 790-0867(신대동)

http://www.sungsam21.com

###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연말정산문의: 650-3529

### 기타 알림

#### 가톨릭상지대 2024 신입생 수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기간: 9.11(월)~10.5(목) 수시 1차

문의: 입학홍보처, (054)851-3021~2

http://ipsi.csj.ac.kr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번역: 0명, 행정 사무 등: 0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알림

마감: 10.20(금) 14:00

접수 서류까지(전화 문의 사절)

이메일 문의: mano@cbck.kr

**백합식품**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장맛

백합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추자도 성지순례 3일 34만원 매주출발  
대전교구 성지순례 4일 12월 26일~29일

**해외성지순례 모집**

스페인·포르투갈 10월 11월 29일 출발(KE 특별가)  
이스라엘 9월 4월 22일 출발

미카엘여행사 ☎ 010-8650-9690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보약  
돈보닝  
고기**

건강한 고기는 보약입니다!

변 향숙(프란체스카)

상동점 ☎ 053)752-0007 | 파동직영점 ☎ 053)767-1005

**신랑각시결혼**

안정직 · 초혼 · 재혼 · 만혼

전국 가능 | 성사 시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 원 교(요안나) | 30년 경력

**010-2817-8888 | 053)471-0707**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바른동물의료센터**

- ▶ 365일 24시간 진료
- ▶ 대학병원 석/박사 원장 진료
- ▶ 동물병원내 CT 장비 도입
- ▶ 유튜브 "개알남" 채널 운영

달서구 와룡로 142 (구 이마트 감삼점 맞은편)  
대표원장 이세원(루카) 053-571-0075

건축공사/토목공사/종합건설업

**[주] 가우디 건설**

대표이사 권장호 (미카엘)

**053) 763-8395  
010-2509-6624**

입원하지 않는 한방치료 \_ 50년 전통

★ 치질치료 (치핵, 치루) ★

**동보한의원**

**☎ 053)425-4085**

도시철도 1호선 신천역 4번 출구(3층)  
원장 한의학박사 장 세 환(호한)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아네스) 의학박사 김권배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신동) 척탄병원 3층  
청라언덕(신남)역 9번출구 진료료외 053-422-3334

###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성만 마나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 윤광제 님잇 신부  
2010년 10월 4일
- 부 클라우디오 신부  
1930년 10월 5일

### 교구 | 대리구 알림

#### 10월 임신부 축복 미사

일시: 10.13.(금) 10:00~12:00

장소: 성모당

대상: 신자 임신부(신청필수)

진행: 모임 및 축복미사

신청: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222차 탈출기

기간: 10.21(토)~22(일) / 28(토)~29(일)

장소: 꾸르실로 교육관 / 신청비: 15만원

대상: 탈출기 팀공부를 완료한 청년

신청: www.jesusclub.or.kr 청년사목

문의: 교구 청년청소년국, 264-2030

####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화락(예로니모)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 교정사목부 종교서적 기증 안내

문학전집, 외국어, 심리 관련 서적 환영  
각 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때 접수  
문의: 교구 교정사목부, 636-8916

#### 시설 | 기관 | 단체 알림

##### 가톨릭여성교육관 설립 42주년 감사미사

일시: 10.23(월) 11:00

장소: 교구청 내 성모당

주례: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

기념행사: 미혼모돕기 후원전시회

신청: 254-6115

#####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모집

모집기간: 10.30(월)~11.10(금)

온라인 접수: <http://cu.ac.kr>

문의: 660-5111

##### 2024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설명회

일시: 10.18(수) 10:30

장소: 백합어린이집 강당

대상: 2021년생~2018년생 학부모

문의: 256-6862

#####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 프로그램

쇄신 주말: 10.14(토)~15(일)

403차 ME주말: 10.27(금)~29(일)

404차 ME주말: 11.24(금)~26(일)

장소: 한티피정의 집 / 문의: 983-0521

<http://dgme.or.kr> 접속 후 신청 가능

##### 재속 맨발 가르멜회 지원자 모집

첫째 주일 (010)3308-1004

첫째 주일 (010)4525-2467

넷째 주일 (010)3307-5772

넷째 주일 (010)8587-7683

대상: 만 19세~만 55세

##### 제5회 교구장기 배드민턴 대회

일시: 10.9(월) 9:00~17:00

대상: 전종목 신자+ 비신자 1+1



좌측 QR 코드로 신청  
및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티 가는길

4차: 10.31(화)~11.2(목)

장소: 톡핑포교베네딕도수녀원 영성관

5차: 11.28(화)~30(목),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25만원 (2박 3일)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 울릉도 천부성당 영성센터 순례 숙소

아름다운 울릉도 최고 순례지,

조용한 쉼, 묵상, 경관 좋은 곳

개관: 매년 4.1~10.31

홈페이지: 천부성당 영성센터 검색

예약문의: (010)4097-0090

##### 2023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주 본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도안김영내과**  
혈액투석 주·야간투석  
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

원장 도원석(베드로) 김아림(안나)  
대구 서구 팔달로 152 4층 지하주차장안반  
3호선 팔달시장역, 팔달신시장 맞은편  
외래검진 053)357-7400 신장실 053)357-7500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 (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 2인 진료

**건강검진  
전인병원**

☑ 대학병원급 의료장비 보유  
☑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검진 시행

1688-7667 대구가톨릭대병원 인근 **전인병원**

**코리아알트만**  
40년 전통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54 (2층)  
T. 053-743-4488  
M. 010-3530-7467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24년 전통  
국제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TV' 운영  
대구신촌 결혼기고 / 달서구청 결혼장려 추천 위원  
MBC 외 방송 다수 출연

수신나 이현숙 박사의 '결혼하는 비결' 책 출간  
M. 010.6571.3385

**KGB 포장이사**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